

<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완전히 예비하지 않고서는 ‘기회’가 왔어도 놓친다.
2. 예비란, 비유컨대 새집을 예비해 놓고 새를 잡으면 즉시 넣어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과 같다.
3. 촬영 준비를 해 놓고 기다리면, 희귀종 짐승이 지나갈 때 즉시 찍을 수가 있다. 이와 같이 ‘도적같이 오신다는 메시아’도 해당되는 것을 예비해 놓고 있으면, 도적같이 왔을 때 알고 맞는다.
4. 메시아는 성경에 나온 대로 ‘하나님의 사랑’을 가지고 오니, 사랑으로 예비해 놓고 맞아야 된다. 미워하면, 맞지 못한다.
5. 신약 때는 종교인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미워해서 못 맞고, 악평해서 못 맞았다. 이 시대도 그러하다.
6. 메시아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메시아를 믿기는 해도 맞지 못한다.
7.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주어 행하게 하여 의롭게 만들고, 영도 혼도 육도 사망에서 구원시키신다.